학부모 리포트

따뜻한 **경북교육** vol.4 따뜻한 **교육소식**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목차


4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장 현장연수, 학생 교육환경 점검 그 현장속으로 / **기수정, 김차숙**


6 기능경기대회 규정 변화와 달라진 정책 안내 / **남명남**


8 2020 제일유치원 이색 여름 페스티벌 현장속으로 / **기수정**


10 상주공업고등학교, 학생자원봉사단 사진을 통해 여름의 백일홍을 피우다 / **남명남**


12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요! 2020 전국기능경기대회 / **남명남**


14 청렴을 공연으로 만나는 색다른 경험, 2020 경북교육청 청렴라이브 / **이주섭**


16 2020 학교지원강화를 위한 포항교육가족 현장소통토론회 / **최현숙**


18 아이들에게 만들어가는 경험을 선물하세요!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체험 / **김윤미**


20 의성 미래교육지구 단밀마을학교 발대식에 가다 / **고삼주**


22 도서관 '찾아가는행복시콘서트' 시울림학교 가을을 산책하다 / **강은아**


24 미래교육학부모아카데미 구미권역 워크숍 개최 / **남명남**



26 '따뜻한 밥의 딜레마' 공동조리로해결하다 / **김지혜**



학부모기자단에서 2020. 8. ~ 2020. 12.월에 보내주신 기사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하나세상 작은 음악회 / **김선주**  28

성암초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 학교 교육모니터링 협의회 · 교통 캠페인 · 독서 동아리 · 직업 영상제작 공모전 / **박찬숙**  30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우리 사회 따뜻하게 만들기' 봉사활동 / **남명남**  32

'고교학점제도입' 고1 우리아이, 진로진학 어떻게할까? | 포항고등학교학부모교실개최 / **최현숙**  34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중학생 학생대표가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 **오숙자, 장세희**  36

2020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 특강 | 책 나눔 학부모자원봉사자 연수 / **박찬숙, 권승희**  38

꿈의 궁전, 감천초등학교에 다녀오다 (학교공간혁신사업) / **강은아, 조혜연**  40

영주동산여자중학교, 소통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자치회 활동 활성화 / **오숙자**  44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경산권역 워크숍 개최 / **권승희, 박찬숙**  46

2020 영주창의융합 온라인 축전! 선비, 과학 수학 원리에서 노닐다 / **오숙자**  48

학부모기자가 떴다! 신성초, 팩트체크 원투쓰리 / **강은아, 남명남, 조혜연**  52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장 현장연수

학생 교육환경 점검 그 현장 속으로



지난 7월 31일,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대표 현장연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칠곡군 공사립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대표 약 60여 명이 모여 대구·경북 영어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구경북영어마을은 칠곡군 지천면의 121,977m² 규모의 시설로서 맞춤식 프로그램, 콘텐츠, 원어민 강사들을 통해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칠곡교육청 이숙현 교육장은 *"칠곡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다. 1학기 때 해주셨던 것처럼 2학기에도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위해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 방안 강구와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상호 논의 및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는 '운동장 잡초 관리, 운동장 인공 잔디, 학교 주변 교통안전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기수정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hohosj04@hanmail.net



김차숙
2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kixx1234@naver.com





〈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현장 연수 단체 사진〉

이어 군위에 있는 삼국유사테마파크를 방문해 체험 시간을 가졌다. 북삼초등학교 문지환 운영위원장은 *"지역에 있는 문화공간을 견학하면서 향후 학교 견학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석하게 되었다. 영어마을 프로그램이나 구성이 흡족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수 없던 게 아쉬웠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가 진행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고, 제일유치원 강옥희 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이 영어마을 견학을 다녀오면 재밌다고 만족해하였다. 그동안 아이들 이야기와 사진으로 짐작만 했는데, 궁금증도 해결하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서 지나칠 수 있는 볼거리 체험 거리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또 순심여자고등학교 민지애 학부모 대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연수가 처음 열렸는데, 안전 문제로 버스에서도 대화할 수 없어서 교류와 정보공유가 어려워 아쉬웠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현장 연수가 열린 것 자체가 의미 있고 뜻깊은 것 같다."*라고 뜻을 밝혔다.

기능경기대회 규정 변화와 달라진 정책 안내



출처 – 교육부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준비하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기능경기대회 운영방안이 교육부를 필두로 변화하였다.

과도한 경쟁과 학교 간 언쟁을 발생시키고 선수들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시도별 종합순위 발표제를 폐지하고 공동 메달제가 도입된다.

10시 이후 야간작업 교육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숙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또한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맞춘 드론, 3D프린팅, 사이버보안 등 미래 유망 직업군의 기술 직종도 신설된다.

개선안을 보면 선수 선발 방식이 개편된다. 전국대회 참가 자격은 지방대회 1~3위 입상자에서 지방대회 우수상 입상자로 종목당 1~4명까지 우수상을 받은 학생에게도 출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전국대회의 경쟁과열 요소로 지적되는 **'시도별 종합순위 발표'**를 폐지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방식의 공동메달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1등의 점수가 90점인 경우 2점 차(88점) 안에 든 선수에게는 모두 금메달을 수여하는 식이다.

과도한 경쟁 구도 완화를 위해 과제 출제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2년 단위로 문제를 사전에 공개한다. 특정 과제에 대한 반복 훈련을 지양하고 학생





남명남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youthnews0308@gmail.com



들의 창의력과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금 위주의 포상 방식도 개선한다. 메달에 따라 금메달은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은메달은 800만 원에서 600만 원, 동메달은 기존과 같은 400만 원으로 축소하였다. 대신 단기 해외 기술연수 프로그램 등의 보상을 늘리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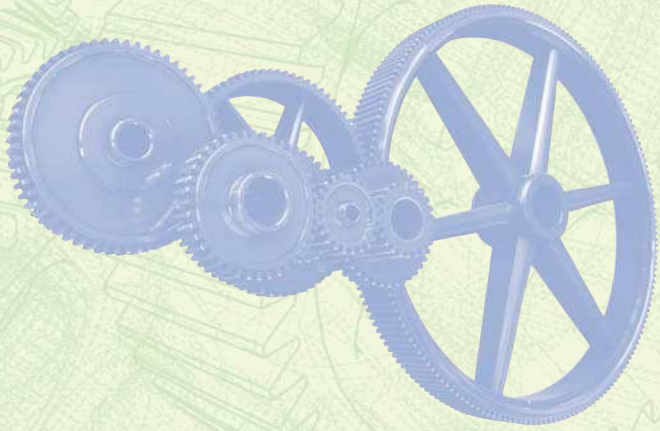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은 중장기적으로 전국대회와 통합해 전국대회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할 계획이다. 연이은 대회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서 2월 말에 열리는 지방대회와 8월 말에 열리는 전국대회를 통합한다. 또 대회 개최를 방학기간으로 조정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 **'기능반'**으로 불리던 정규 **'전공심화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한다. 동아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자유롭게 입 · 탈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규수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기능대회의 학생부와 일반부로 분리 운영도 실시한다. 직업계고생이 참여하는 학생부의 경우 학교 수업과 연계한 대회로 운영한다. 근로자, 전문대 학생 등 성인 참여가 가능한 일반부는 수준 높은 지식과 역량을 측정해 대회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심사위원의 온 · 오프라인 모니터링과 대회 종료 후 다면평가 · 선수 만족도 조사 등도 실시한다. 스마트 채점관리시스템을 확산해 대회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대회 참여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진흥원 내 **'기능경기 특별반'**을 운영한다. 특별반은 IT 네트워크 시스템 등 29개 직업을 중심으로 연간 2,000명을 정원으로 두고 매년 2월부터 8월까지 편성 · 운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술과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매달 수상자와의 토크 콘서트, 숙련기술 체험관 운영, 드론 · 로봇과 같이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직종에 대한 **'미니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연 2회마다 실시하는 정기 감독과 수시 관리 · 감독을 할 예정이다. 산업인력공간 내 공익신고센터도 설치 · 운영해 학생 관리도 꼼꼼하게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 제일유치원 이색 여름 페스티벌 현장속으로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제일유치원의 이색 여름나기 프로그램이 화제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곳에서 열린 여름 페스티벌에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기간 아이들은 유치원 강당에 튜브를 깔고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MOVIE DAY),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에 나오는 목욕탕을 실제로 꾸며 체험(찜질방 DAY)하며 더위를 이겼다.

또 여러 가지 비눗방울 도구를 이용해 꾸며진 **'비눗방울 DAY'**, 상어 모자를 만들어 써보며 물고기가 되어보고 상어의 뱃속을 탐험하며 다양한 패턴의 물고기에 관심을 유도하는 **'배고픈 상어의 뱃속 탐험'**, 유치원 내 잔디밭에서 펼쳐진 **'캠핑 DAY'**, 직접 팥빙수를 만들어 먹어보는 **'제일 팥빙수 집'**까지 매일 매일 다양한 이색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일유치원은 지난해까지 물놀이가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던 여름 페스티벌을 올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물놀이를 없앴다.

박호경 어린이는 *"푹신한 튜브에 앉아 영화를 보니 더 재밌었다."*라고 즐거워했다. 방시완 어린이 역시 *"상어 모자를 쓰고 야광 스티커를 붙이고 잡기놀이도 하고 너무 즐거웠다. 다음에 또 상어 놀이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기수정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hohosj04@hanmail.net



2019년 여름 페스티벌 모습





2020년 여름 페스티벌 MOVIE, 찜질방 DAY 모습



2020년 여름 페스티벌 캠핑 DAY 모습

유치원의 코로나19 선제 대응과 유익한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다. 학부모 박옥규 씨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놀이 프로그램이 있을까 내심 걱정이면서도 물놀이 없이도 아이들이 재미있어할까 고민이었다. 오히려 안전하고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안심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실제 목욕탕 소품들과 얼음물에 발을 담그는 등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 했다."*,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다."*, *"팥빙수를 만들어 먹는데 너무 시원했다고 한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제일유치원 한마니 교사는 *"아이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여름에 즐길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하루에 끝내는 맛보기 체험이 아닌 매일매일 다양한 활동들로 아이들이 충분히 느끼고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김정민 교사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이 매일매일 재밌다고 얘기해 줄 때 힘을 얻는다."*라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등원을 한다고 하실 때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허수정 제일유치원 원감은 *"매년 7월부터 즐겨왔던 물놀이 대신 아이들이 즐거워할 놀잇거리를 찾아 특별한 여름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한 지침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원 안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일유치원은 1995년에 설립해 지금까지 1,99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아이들의 놀이가 밥이다'**라는 이념으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놀이와 창의적인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주공업고등학교 학생 자원봉사단

사진을 통해 여름의 백일홍을 피우다



상주공업고등학교는 **'참된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교훈 아래, 매년 국가공무원과 국군 부사관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자율 동아리, 프로젝트 연구, 심화 동아리반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자주적인 제작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 2일 무더운 여름, 상주공업고등학교 철도전기과를 비롯한 경북 특성화, 마이스터고 연합 청소년 단체인 **'사진 찍는 기술공들'**은 상주 가인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416 재단과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장수 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상주공업고등학교의 **'사진 찍는 기술공들'**은 2019년 10월에 교내 자율 동아리로 지정되었다. 상주공업고등학교는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과 활동 장비,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찍는 기술공들은 철도전기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사회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비전으로 만들어졌다. 작년부터 민간 재단과 미디어센터에서 사진 세미나와 재단 활

남명남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youthnews0308@gmail.com



동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찍는 기술공들 대표 정우혁 학생은 *"봉사를 통해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년층과 소통을 하며, 우리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하였다. 1, 2학년 학생들이 경북 내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생 봉사단을 꾸려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노인제가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진 봉사, 장수 사진 촬영, 다인(多人) 촬영, 복지센터 시설 촬영, 노인 복지 프로그램 촬영, 쇼트 다큐멘터리 촬영 등을 하였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요청하는 봉사를 비롯해 말벗, 노래 등 어르신들의 귀와 눈이 즐겁게 해드리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마음 또한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1차 봉사활동은 경북과 충북에 있는 특성화·마이스터고교 4개(구미전자공고, 상주공고, 충주공고, 용운고), 인문계 고등학교 (선주고, 경구고)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지도교사 황문성은 *"학생들이 단순한 성적과 스펙 쌓기를 벗어나 소양을 기르고,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사진 찍는 기술공은 10월 가을 사진 봉사를 끝으로 2020년 활동을 마무리한다.

2021년에는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2020 전국기능경기대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요!





남명남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youthnews0308@gmail.com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전라북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산업용 로봇, IT 네트워크 시스템 등 50대 직종의 1,778명 선수가 참가해 9월 14일(월)~21일(월)까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에서 개최된다.

전북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이끌 우수한 숙련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고 기능 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대응해 숙련기술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회 규모를 경기 중심으로 최소한 도로 축소하는 한편, 무엇보다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고용노동부, 전북도 · 교육청 등 관계 기관 간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

또한, 개회식 · 폐회식, 시상식 등 대회 주요 행사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회장 실시간 영상, 채점 결과 시스템 조회 등 온라인 매체(유튜브 채널 등)와 직업방송 채널 등을 통해 행사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세심하게 신경 썼다고 한다.

안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회를 위해 기능경기대회 전용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준수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대회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1,200만 원(금), 800만 원(은), 400만 원(동)의 상금이 지급되고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국가기술자격인 산업기사의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 또한 주어진다.



2020 경북교육청 청렴라이브

청렴을 공연으로 만나는 색다른 경험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 청렴 라이브(Live)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현장 관람 인원을 최소화하고,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하는 등 엄격한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 한 공직자들도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TV'**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색다른 공연 양식의 청렴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핵심가치인 청렴에 대한 인식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을 기대한다."*라는 교육감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교육은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청렴 라이브'**라는 보고 즐기는 문화공연으로 접근해 고위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배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교육에서는 전통 판소리 **'흥부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부정 수급 등의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동시에 교훈을 전달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통계 소개, 청렴 상황극 **'고이사의 하루(사례로 본 부정청탁법)'**, 청탁 금지법의 이해,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김담이 이야기, 청렴 감동 영상으로 구성하여 다채로운 청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주섭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powerzone2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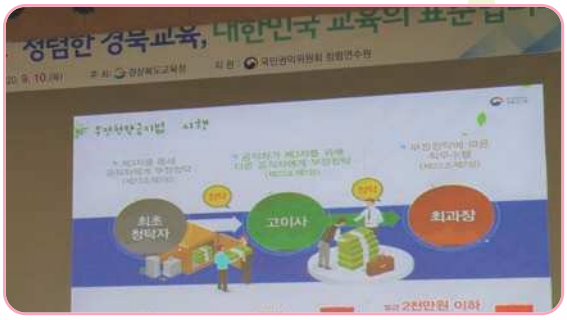




상황극 공연 **'고이사의 하루'**는 청렴 연수원에서 근무하던 고이사가 고가의 옥팔찌 납품이라는 부정청탁을 받은 상황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청렴의 4가지 구성 요소인 민감성, 판단력, 동기화, 수행력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해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샌드아트로 공연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구성하였다.

'청렴 실천이 어려운 4가지'라는 주제로 실시된 통계 조사 결과, 1위는 *"아는 업체를 매정하게 어떻게 잘라내겠는가?"*였다. 우리나라의 정(情)문화가 공직자들에게는 도리어 독이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情)을 정(正)으로 바꾸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20 포항교육가족 현장소통토론회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한마디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은 9월 18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현장소통토론회를 하였다. 현장소통토론회는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방식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교육의 현황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방역 수칙상 참석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소통협력관에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를 하였다. 50분 동안 토론회 참석자와 유튜브의 실시간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경북교육 가족들은 평소 궁금해하던 사안을 질문하고, 개선사항들을 제안하였다.



▶ 출처: 경상북도교육청 맛쿨멋쿨TV, 소통협력관

● 질문과 답변(요약)

★★★★★

질문 ① *첫번째, 근무지 병설유치원에 교직원 자녀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두번째 학교에는 여러 직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복무 지침을 내릴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적용을 내려진다면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질문합니다.*

— 포항시 초등교장협의회장

답변) 첫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병설유치원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직접 정답을 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선생님은 국가공무원이고 행정직은 지방공무원이라 복무 규정이 다릅니다. 직에 맞는 복무 규정을 함께 내리도록 해서 혼란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② *00초는 전교생이 55명인 작은 학교이며, 50명이 큰 학교에서 전학 왔습니다. 수익자부담으로 운영 중인 통학버스 차량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민원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통학버스 차량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 00초 운영위원장

답변) 작은 학교 살리기는 장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미래 교육,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 자유학구제 29개 시범운영했고 130여 명이 옮겼습니다. 올해 108개(중학교 11개 포함)로 확대했습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버스 지원은 예산 문제가 있어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

질문 ③ *코로나 때문에 잇따른 가정의 아동학대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비대면 사회에서 소통의 부재로 오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00 학부모회장

답변) 학교에서 담임교사나 Wee클래스 상담교사가 전화상담,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초등 저학년일 경우 담임교사를 연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6,993명 신청받아 교직원 성금(4억 5천)과 외부성금 총 5억 5천만 원을 5,500명에게 10만 원씩, 공동모금회에서 1,500명에게 10만 원씩 1차 지급했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

최현숙
2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choisamo9606@hanmail.net



습니다. 제일 큰 위기가 아이들의 심리 문제이고 기초학력 격차문제가 또 있습니다.

★★★★★

질문 ④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자퇴한 경우가 있고 우리도 학생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유튜브 질문

답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활 · 학습 ·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놓치지 않고 신경 쓰겠습니다.

★★★★★

질문 ⑤ *취학 전 아이들이 공 ·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그 중 사립유치원만 자부담 1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사립유치원을 다니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포항시 사립유치원 연합회장

답변) 사립유치원은 참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다 되고, 중등의 사립중, 고등학교는 인건비까지 교육재정에서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사립유치원도 국가에서 무상교육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사립유치원 학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 전국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추며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도 같이 신뢰를 굳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 ⑥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생존 수영처럼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교통 안전이 잘 지켜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와 학교 주변 불법 정차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OO 학부모회장

답변) 등하교 시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학교 자체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고, 의성과 안강에 종합안전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진, 교통안전을 체험 교육하려고 합니다. 또 학교별로도 작지만 체험 공간을 준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⑦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습부진과 학력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AI 나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경북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OO 중학교 학부모회장

답변) 원격수업을 아무리 잘해도 대면 수업보다 효과가 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위권과 기초학력부진 아이들은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학기에 기초학력부진 아이들의 개별 지도를 위해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교사자격증 있는 교사, 퇴직 교사, 학부모 등의 인력으로 100여 개 학급에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려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실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2학기에 모든 교사에게 노트북을 지원합니다. 줌(Zoom) 같은 외국 플랫폼을 사용하면 수업 중 해킹의 우려가 있어 이상한 동영상이 올라올 수 있고, 교사의 모습을 캡처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포스텍 홍 교수님이 국내산 제품을 무상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년 말부터 초3부터 중3까지 5개 과목 학업성취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아이들이 그 학년 교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온라인으로 시험을 칩니다. 통과되면 인증서를 주고, 안되면 온라인 보정학습 등을 해서 아이들에게 학업 성취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⑧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교원도 감정노동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악성 민원 예방 차원에서 시청이나 관공서와 같은 경우 전화받자마자 "지금 전화받는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 과 같은 멘트가 나오면서 전화하는 사람의 언어 예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멘트를 넣어서 악성 민원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 유튜브 질문 2

답변) 적극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

질문 ⑨ *특수학교에도 WEE 클래스가 설치되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상담지원이 필요합니다. 특수학교 학생을 WEE 센터에 의뢰하면 특수학생이라고 매우 난처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튜브 질문 3

답변) 특수학교가 8개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서 확대하겠습니다.

★★★★★

질문 ⑩ *학교 현장지원을 위해 학교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전 교육지원청에 모두 생긴하고 하는데 경주에서 지금 시범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학교에 어떤 업무를 하며 도와주는지 궁금합니다.* — 유튜브 질문 4

답변)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청을 옮겨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업무, 학교시설관리 업무 등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모든 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조례나 법 규정 때문에 일부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천과 경주에서 최대한 지원 업무를 발굴하고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는 교육청의 규모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직접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체험

아이들에게 만들어가는 경험을 선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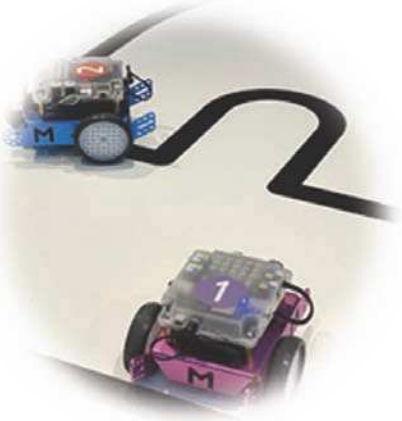




메이커 교육, 아직은 좀 낯설게 느껴지는 교육이다. 메이커 교육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제반 이론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STEAM)을 목표로 한다. 공교육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미래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도에 메이커 교육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9년 경북메이커교육관 구축 추진 계획과 경상북도교육감-구미시장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을 거쳐 2020년 3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이 설립되었다.

전시관 체험에는 창의마루, 솜씨마루, 키움마루 공간을 이용해 다양한 영역의 기초적인 메이커교육이 이루어진다.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예약 확인을 한 뒤 들어간 VR 메이커에서 가상의 공간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고 그 바로 옆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부스가 있었다.







김윤미
2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fls0498@naver.com



블록 코딩과 로봇 코딩이 인상 깊었다. 로봇에게 *"물건을 가져와!"*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찾는다.'**, **'물건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물건을 챙긴다.'**, **'원래 위치를 바라본다.'**, **'원래 위치로 이동한다.'** 순서로 수많은 명령어를 하나씩 수행해 최종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된다.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코딩의 의미를 더 쉽게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창의마루에는 오토마타, 롤링볼, 실공예, 종이공장, 스토모션, 고속미니카경주, 전기회로 등 정말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있었으며 솜씨마루에는 가전제품 등을 분해하고 재조립하거나 여러 가지 사물을 이용해 나만의 메이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다소 어린 학생과 어린이들을 위한 키움마루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원목교구와 샌드아트 블록 창작 카프라 등을 체험할 수 있는데 샌드아트는 하는 걸 본 적은 있어도 직업 해볼 수 있는 곳은 처음이었다. 영상으로 나오는 작품을 따라서 그려보기도 하고 혼자만의 그림도 그리기도 하였다. 모래의 촉감도 느끼고 창작 활동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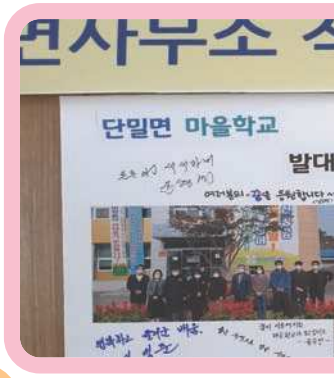
체험 외에도 입구에 있는 시간을 맹글다는 오토마타 인형들이 동작하며 시간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형 **키네틱 아트(Kinetic Art)*** 작품과 핸들을 돌리면 동력전달 장치에 의해 장치물들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메이커교육관을 체험하면서 메이커 교육의 방향성과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노승태 관장님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이끌어 가는 교육, 따뜻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메이커 교육관의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주말이나 평일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해보길 추천한다.

*키네틱아트: 관람자가 움직이는 동력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개체나 이러한 동력 효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오브제

의성미래교육지구
단밀마을학교 발대식에 가다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의성미래교육지구 중점 운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미래인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교육공동체다. 의성군 내 마을학교가 총 6곳(단밀마을학교, 안계마을학교, 단촌마을학교, 점곡마을학교, 옥산마을학교, 춘산마을학교)이 있는데 그 중 10월 19일에 **'단밀마을학교'**가 단밀면사무소 내 작은 도서관에서 발대식이 있었다.

단밀마을학교란

'마을이 학교다.'라는 모토 아래 마을학교 윤혜리 대표와 단밀마을학교 이장임 플래너를 주축으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더 나아가서는 마을 주민들과 소통, 교류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학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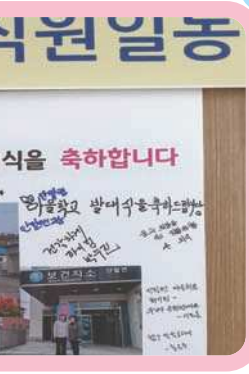
단밀학교 이장임 플래너

단밀마을학교는 9월 10일 학부모들의 드로잉 수업을 시작으로, 9월 21일부터는 매주 월, 수요일 4시부터 6시 30분까지 마을 결합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비정기적으로 토요일 오후에 토요 마을학교도 진행한다.

단밀초등학교 학생 15명, 5~6세 어린이 2명, 중학생 1명이 정규 수업에 참석하고 있으며, 어머니들이 매 수업 아이들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다. 단밀마을학교가 지금처럼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을 때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셨다. 바로 단밀면 이선희 면장님과 면사무소 직원분들께서 면사무소 내 작은 도서관을 내주시며 물심 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 도움의 손



고삼주
2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zzu007@naver.com



길이 발대식에도 빛을 발휘하였다. 이선희 면장님은 발대식에 참석하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장미꽃 한 송이와 마카롱을 직접 나누어 주셨고, 직원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초대장을 받고 단밀초등학교 신유리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께서도 참석하여 아이들에게 축하를 해 주셨다.



신유리 교장선생님의 축하 메시지

규율과 규칙이 있는 학교생활을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방과 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학교가 있어 고맙고 감사하다.

단밀면은 18명의 학생이 다니는 '단밀초등학교'가 있고, 의성군은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단밀마을학교'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단밀마을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단밀에 초등학교가 있고, 부모님들의 사랑과 봉사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단밀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듣다

'단밀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단밀마을학교'는 단밀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경북교육청에 단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개원을 허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단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개원을 바랍니다.〉라는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2명의 유아를 둔 단밀의 한 학부모는 강력하게 '단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등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단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년 전 학생이 3명 이하로 줄면서 휴원하고 있으며, 11월까지 3명의 입학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폐원의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한다. 유치원이 폐원된다는 것은 결국 '단밀초등학교'의 어두운 내일을 예고하는 일이며, 마을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유아가 있고, 유치원이 운영되어야 또 다른 아이가 입학하고, 그 아이들이 졸업해야 단밀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마을과 학교를 지키기 위해 단밀 학부모님들은 '단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개원을 간절히 바란다.

단밀마을학교 취재 후..

단밀초등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작은 학교들의 슬픈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단밀마을학교를 취재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마을과 학교를 지킬 수 있는 씨앗인 우리 아이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날까지 단밀마을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단밀마을학교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하며,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도서관 '찾아가는 행복 시 콘서트'

시울림학교 가을을 산책하다

| **취재일자:** 2020. 7. 31. |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배경규 관장, 이하 **'구미도서관'**이라 한다)은 10월 13일, 경상북도교육청의 특색사업인 **'시울림이 있는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행복 시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시 낭송과 체험 결과물 전시로 아이들에게 시를 감상하는 새로운 패턴을 경험하게 하였다.

구미도서관은 지난 한 달간 시낭송과 손글씨 쓰기 특강을 하였다. 학생들은 시의 내용을 직접 작품화하는 과정을 통해 시를 이해하고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미 지난달부터 **「찾아가는 행복 시 콘서트」**는 그 서막을 올린 셈이다.

구미도서관은 소장 동시집 50여 권과 우수 동시 소개 자료를 **「심쿵버스」**에 담아 학생들이 깊이 있게 시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심쿵버스」**는 추천 자료와 함께 엮어 만든 오프라인 콘텐츠로, 재미있는 시부터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미도서관 이은희 독서진흥 담당은 *"「심쿵버스」에 실려있는 많은 동시들을 읽으면서 감수성이 풍부해지길 바란다. 아이들이 시와 즐거운 여행을 하듯 행복한 시간을 누렸으면 한다. 평소 동시에 관심이 없었는데 재미있고 좋아졌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보람을 느끼고 기쁘다."*라고 하였다.



참 오랜만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구미 선산초등학교 도담관에 모였다. 서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스러운 자리였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선 배은희 팝페라 가수는 넬라 판타지아의 세계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였다. 이어 부른 **'아름다운 나라'**, **'오 나의 태양'**은 코로나에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깊게 위로하였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꽃들과 함께' 순서에서는 세 명의 학생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 엄기원 시인의 **'풀꽃'**, 윤보영 시인의 **'꽃'**을 청아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낭송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대에 선 3학년 김은서 학생은 *"무대에서는 처음에는 떨렸는데 시낭송을 하니 선생님 말씀대로 안 떨*

강은아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rosee-kang@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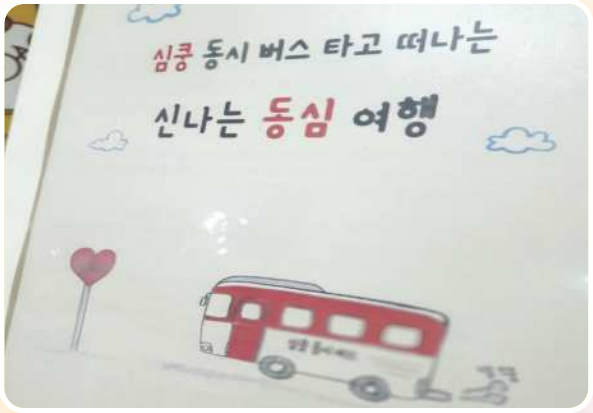


*렸다."*라고 하였다. 시낭송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시가 너무 길어서 힘들었고 반전 주기와 띄워 읽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선생님과 같이 하니까 괜찮았어요."*라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특히, 이정록 시인의 **'달팽이 학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시를 낭송하는 선생님과 제자의 모습은 참 정겨웠다. 지난 겨울방학을 끝으로 보고 싶



어도 보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그 평범했던 학교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듯했다.

'시울림이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홍은진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동아리 활동이 무척 힘들었다. 도서관과 연계해 화요일은 시낭송 수업, 목요일은 캘리그라피를 지도해 주셔서 의미 있는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 전부가 한자리에 모일 수 없고 또 학부모들을 초대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역력했지만,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술공연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또한 놓치지 않았다. 무대를 바라보는 아이들 눈이 무대 조명에 반짝였다. 굳게 다물어진 입술이 점점 벌어지는가 싶더니 입꼬리가 살짝살짝 올라간다. *"아! 이것이 「찾아가는 행복 시 콘서트」구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선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공연은 심적으로 건조했던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행사를 돕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가을의 낭만적 정취를 느낄 수 있게 오랜 여운을 남겼다. 따스한 시낭송 공연에 아이들의 마스크 사이로 이야기꽃이 새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꼭 지키며... 도서관의 찾아가는 행복 시 콘서트는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 등 직속기관 5개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영일도서관, 금호도서관, 점촌도서관, 삼국유사군위도서관, 의성도서관, 청도도서관, 성주도서관, 칠곡도서관 8개관이 참여해 학생과 교사가 시낭송하고, 낭송 전문가가 공연하는 등 시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1단계로 조정되면서 그동안 자유롭지 못해 경직되기까지 했던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듯 릴레이 공연으로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데 학생들이 시를 자유롭게 음미하고 즐기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미래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구미 권역 워크숍 개최

경북교육정책 및 미래교육방향

지난 10월 20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 글로벌관에서 2020년 미래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구미권역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구미 · 칠곡 · 성주 · 고령 등 4개 지역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이용희 장학관의 **'경북교육정책 및 미래교육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시작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삶의 힘을 키우는 능력은 무엇이며,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어 학부모 표창과 하모니 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



남명남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youthnews0308@gmail.com



워크숍을 마치고 같은 곳에 위치한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 교육관을 체험하였다. 디지털 교실,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와 같은 디지털 교육을 하는 솜씨마루,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키움마루, 창조 조형물이 있는 배움마루 그리고 미디어 체험과 예술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창의마루, 나무를 자르고 조립 활동을 하는 목공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천 산자연중학교 조형운 학생은 *"처음에 올 때는 조금 귀찮았는데, 와서 체험을 해보니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다."*라고 하였고, 전현정 인솔교사는 *"평소에는 학생들과 하지 못한 이야기도 하고, 학생들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교육 지원이 있기를 바라며, 학생들이 책상과 의자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더 넓은 곳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길 기대해 보다.

학교급식 공동조리 활성화 방안 협의회

'따뜻한 밥의 달레마' 공동조리로 해결하다

| 취재일자: 2020. 7. 31. |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건강예술과 관계자는(김선치 과장 외 3명)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급교급식 공동관리 운영'**에 대하여 우수학교를 방문하고 사업 추진 내용을 협의하고자 10월 22일 예천 용궁중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날 **〈학교급식 공동조리 활성화 방안 협의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이성희 과장 외 3명의 관계자와 용궁초 조성래 교장, 정경호 영양교사, 용궁중 김중식 교장, 박병우 학교운영위원장, 예천교육지원청 김형기 건강증진담당 등 총 14명 참석자의 진솔한 토의가 이어졌다.

협의회는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조리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 학교급식 공동조리 전화 추진 우수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공동 조리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가 늘어났다. 급식 시설의 노후화되어 급식실 현대화가 필요하였다.

김지혜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euxnjlove@hanmail.net





소규모학교 급식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근 학교 간 공동조리를 추진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이성희 과장은 *"용궁초등학교와 용궁중학교는 2020년 3월 1일 자로 공동조리를 시작하였다. 급식실 현대화로 급식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공동조리 학생 수가 늘어나서 식단도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공동조리교의 수를 늘려서 학생들의 급식을 더 맛있는 식단으로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용궁중학교는 처음부터 공동조리를 원한 것은 아니다. 따듯한 밥을 먹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용궁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협의 과정에서 예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T/F팀은 학교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이동하기 편한 공간에 급식실을 리모델링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정훈 주무관은 *"따뜻한 밥을 위생적이고 신속하게 배달하기 위해서 급식 탑차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였다. 용궁중학교 급식실은 탑차로 배달되어 온 급식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 인덕션과 보온 기능이 있는 현대화된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뜻한 밥'의 딜레마는 배식 도우미를 도와서 급식 준비를 돕는 용궁중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 탑차를 운전하는 기사, 조리교 용궁초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들의 배려로 극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공동조리를 선택하는 학교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급식소가 없어지면 학교가 통·폐합된다는 불안감이 공동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조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더불어 학교장의 관심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세상 작은 음악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10월 22일 김천 봉산 테마공원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되는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음악회를 개최한 하나세상은 지역의 장애청소년, 비장애청소년,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세상은 장애 아동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가족, 지역사회단체, 전문가 집단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15년의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작은 음악회, 하나세상 강연회, 인권 영화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서 왔다.



하나세상은 2006년 7월 17일 제1회 작은 음악회를 시작하였다. 김천 YMCA, 누리복지재단, 한걸음어린이집, 장애인부모회가 김천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15년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틀리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작은 움직임을 음악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매년 6월에 진행되던 코로나19로 연기되었고 취소될 위기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1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하향됨에 축소하여 진행하여 10여 단체가 참여하던 행사가 작은 음악회로 한걸음어린이집, 장애인부모회, 봉계지역아동센터 3단체만 참여해 진행되었다.



풍선, 마술 레크레이션을 시작으로 무대의 집중도를 높였다. 김천 YMCA 김문수 이사님은 *"2020년 제15회인 하나세상 음악회가 제150회가 될 때까지 건재하기를 바란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하나되기 위한 간절한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에 맞춰 멋진 색소폰 공연은 붉은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차가운 밤공기를 뜨거운 열기로 데우기에 충분하였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 장애 아동의 재활도 보육을 위해 노력하고 한걸음 어린이집 초등학생의 합창과 율동으로 본 행사를 시작하여 함께 한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김선주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ju0208-1@nate.com



이번 행사를 준비한 공동대표는 *"15년 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하나세상을 만들고, 음악을 통해 소통하기 위한 시작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우리 아이들 너무 많은 성장을 하였다. 앞으로 우리들의 아이들이 스스로 바로 서는 날을 기약하며, 하나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뒤이어 김천시 장애인부모회 친구들의 난타공연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며 이러한 작은 음악회와 여러 노력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야기하고, 출연자 전원과 관객들이 하나되는 무대로 막을 내렸다. 많은 노력과 연습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희망을 찾고, 용기를 주며, 장애를 이해하는 작지만 큰 감동을 선사하는 음악회였다.



'2019년 하나세상 강연회'에 참여했을 때가 기억났다. 흔히들 본인들은 장애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들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또 다른 편견과 역차별을 가지고 온다. 그러기에 앞서서 선한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 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다가서는 게 바르다는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성암초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학교 교육모니터링 협의회 · 교통 캠페인 · 독서 동아리 · 직업 영상제작 공모전

2020년 우리의 교육 환경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전면 등교 실시로 그동안 제한되었던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확대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오던 기존의 조직 활동들을 결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학부모회들이 조직되었다. 그중에서도 실제로 학교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만족도를 높이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아리들을 구성하여 학부모 참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산 성암초(교장 이영랑님)와 학부모회(회장 김현정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산에 있는 성암초는 2015년 경산 중산지구 개발 지역으로 신설 대체 이전하였다. 전체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이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고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 수요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 안전과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에 중점을 둔 학부모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첫째, 2020년은 달라진 교육 참여 환경의 변화로 비대면과 모니터링, 온라인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였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수요 조사 결과, 신청자 수는 120여 가정에 달했다. 맞벌이와 학교 참여 기회가 다소 적었던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교육 모니터링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특히 온라인 교육으로 관심이 높아진 학교 홈페이지의 학부모회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소통에 힘썼다.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학교 알리미에 반영한다. 코로나 방역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학년별로 구분한 소수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하였다. 학부모회 게시판은 누구나 언제든지 학교에 적극적인 건의와 개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열린 소통 공간이 되었다.

박찬숙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cs7510@naver.com



둘째, 다년간 지속해오던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 독서 동아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앞 불법 주정차와 U턴 구역의 교통 정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2020년 9월 1일 자로 부임한 교장선생님은 **'안전한 등학교길'**과 밝은 인사로 등하교길을 반겨주신다. 독서 동아리는 삼년 전부터 교실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다. 학부모 간에는 수준에 맞는 독서 원리와 가정에서 쉽게 지도 가능한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한다. 이에 올바른 독서 습관, 다양한 도서관 이용 등 성암만의 독특한 독서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셋째, 이번 학기에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위해 부모님들의 직업 세계를 탐방하고, 고학년 아이들의 진로 교육 활용자료로도 삼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영상 제작 공모전도 함께 개최되었다. 가정에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유튜브 및 촬영 영상물들을 모아보니 드라마 같은 멋진 영상이 재탄생하였다. 공모 형식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의 작품을 모아 시상도 하고 내년엔 더 다양한 주제를 반영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학부모회에서 밝혔다.

다양한 사업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가족 단위 자원봉사 활동이다. 각 가정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학교 주변과 인근 공원을 돌면서 쓰레기 줍기와 안전 등을 돌아보는 활동이었다. 평소 바쁜 등하교 일정으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동네와 주변 동선들을 돌며 나와 우리,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로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성암초 학부모님들의 수고로움이 느껴진다. 맞벌이 등으로 함께 있어 주지 못한 미안함에 혹은 가족 단위의 참여에 대한 호기심으로 하나, 둘 참여 가정이 늘어났다.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환경 정화와 가족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 진지하다.



두 아이와 함께 봉사에 참여하신 학부모(양OO님)은 *"올해 입학한 초등 1학년 동생과 6학년 형이 함께 쓰레기 봉지를 들고 학교 주변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참여와 아버지회의 활동도 기대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성암초 학부모회는 신설 대체 이전과 아파트 단지 내의 입지 요건으로 전학생 수가 폭발적이며 저학년 학생 비중이 압도적인 특징이 있다. 비교적 젊은 3040 학부모 층은 다양한 교육 욕구와 관심도를 반영할 학교 참여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학교 참여 활동은 소수의 학부모회 임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부모들의 제안과 폭넓은 참여로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가능하며,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 교육의 모습일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우리 사회 따뜻하게 만들기' 봉사활동



상주공업고등학교는 2020년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운영 참여 수업에 선정되었다.

학부모 운영 참여 수업은 학생뿐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자녀들을 응원하는 학부모들도 일상에서 벗어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차로 이랑도예에서 도예체험으로 예쁘게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찻잔과 티슈 상자를 만들었다. 2차로 10월 23일 상주에 있는 계림 성당에서 독거노인분들에게 도시락 나눔 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상주공업고등학교 학부모회와 상주공업고등학교 관악부 학생들과 선생님이 동참하였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봉사하며 학생들에게는 인문학적 소양의 가르침을, 학부모들에게는 나눔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계림성당 내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에서 매주 무료 급식을 진행한다. 이날도 일주일에 한 번씩 160명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35가구를 대상으로도 직접 방문하여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였으며 미리 준비한 밥과 반찬을 도시락에 담고 상주공업고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준비해 간 음료와 떡을 함께 나누어드렸다.

남명남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youthnews0308@gmail.com





상주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국과 반찬을 담고 어르신들에게 나누어드렸다. 저희는 잠깐 했는데도 힘들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매번 하신다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꼈다. 받아 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나 스스로만 챙기는 차가운 사회에서 내가 나아가서 사회와 함께 나누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다."*라고 하였다.

또한 상주공업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김혜란은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며 뭔가 느끼는 게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하고 함께 하였는데 학부모 또한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 지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따뜻하게 하는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진행하며 더욱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넓어지고 세상을 생각할 때 더욱 깊게 생각해 상주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를 비추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더욱 차가워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일하고 말하는 시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학교의 수업부터 업무까지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고 쇼핑과 생활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해결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차가워지고, 사람들의 마음 또한 굳게 닫히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서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학생들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많이 잃어버린 나눔, 봉사, 공감을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에 나가기 전 더욱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포항고등학교 학부모교실 개최

'고교학점제 도입' 고1 우리 아이, 진로 진학 어떻게 할까?



포항고등학교는10.29.(목) 소강당에서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1학년 진로 진학을 주제로 학부모교실을 개최하였다.

강사는 정은정 교육과정부장이며 1시간 강의와 15분 개인별 질의 및 응답 시간으로 짧게 진행하였다. 강의 내용은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길라잡이 자료집과 준비한 ppt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대입정책과 교육과정의 관계, 우리 아이 교과 선택하기, 계열과 관련된 교과 외 학교생활 계획하기의 순서로 고교학점에 따른 진로 진학 교육이었다. 교육과정은 통합되었지만, 대학 모집 단위는 여전히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져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내신관리가 수능 준비가 되고 계열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계열에 맞는 과목 선택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의 묘미 살리기, 진로 관련 교내 상 챙기기, 학교 역점 사업, 특색사업 참여하기 등 계열과 관련한 교과 외 학교생활 계획하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브스의 동물학교를 예로 들며 *"교육과정이란 학교 교과 시간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마다 백조나 타조처럼 좌절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 개인의 진로와 특성을 파악하고 잘 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라고

최현숙
2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choisamo9606@hanmail.net



▼1학년 학부모 대상 선택 중심 교육과정 연수 영상 바로보기 ▼



'고교학점제 도입' 고1 우리 아이, 진로 진학 어떻게 할까?

포항고등학교 학부모교실 개최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천 사이트로 내친구교육넷과 대입정보포털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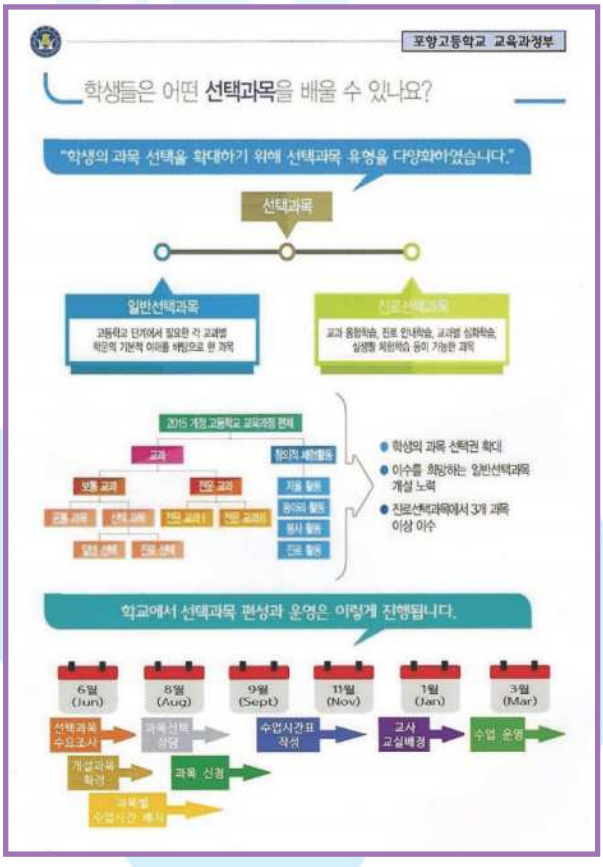
★★★★★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우선 올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 일반고 등에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듣고 있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게 된다. 또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던 반면 고교학점에서는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과목 이수를 인정한다. 이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어 성취 기준에 만족하면 학점 이수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학습이나 재평가 기회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이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경쟁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 출처 : 교육부 –

★★★★★

고교학점제를 앞둔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미리 숙지하여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하는 것이다. 학생은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중학생 학생대표가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10월 31일(토) 경북교육청 화백관에서 중학교 학생회장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타운홀미팅이 개최되었다. 4개 학교(안동-복주여중, 안동중, 도청-풍천중, 예천-예천여중)의 현장 참여 학생 14명과 온라인 참여 학생(학생회장 및 희망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일상생활들이 일부 해제되면서 등교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경북교육의 키워드는 소통, 나눔, 성장이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주체로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민주 시민적 역량과 단위학교 학생자치 능력 함양 기회가 제공되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교육감과 소통의 장은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질의응답(70분 소요), 현장 참석자와 온라인 참석자로 쌍방향 실시간 채팅 원격 대화의 일문일답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경상북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 TV를 통해 중계되었다.

타운홀미팅 현장 질문 내용들

- *수행평가의 시지, 횟수, 비율 조정 희망 (복주여중)*
- *성인지 감수성,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시간 확대 (복주여중)*
- *교복 착용은 학교 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가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안동중)*
- *허리가 덜 아픈 의자와 책상으로 교체 (안동중)*
- *각 학교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촬영실 등 환경 구축 계획 (풍천중학교)*
- *여학생 위생용품 자판기, 비데 설치 (풍천중학교)*
- *중학교 교복 무상 지원 (예천여중)*
- *진로를 생각할 기회와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천여중)*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가 (신라중)*





오숙자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yesora0316@naver.comt



장세희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jangsh0506@hanmail.net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현장! *"진료는 의사, 약은 약사,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나름 한번 떠올려 보았다. 현장과 실시간 채팅을 통한 수많은 질문들! 바로 추진 가능한 답과 교육현장과 좀 더 지켜보며 주실 답변들은 설명을 해주시면서 현장에서 소통, 공감 가운데 진행되었다. 못다 나눈 질의응답은 맛쿨멋쿨TV 영상을 통하여 답변과 의견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무리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유튜브 맛쿨멋쿨TV은 최소화 장비로 소통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듯했다. 유튜브 중계 담당자와 간단한 인터뷰를 했다.

Q *쌍방향 실시간 소통을 위해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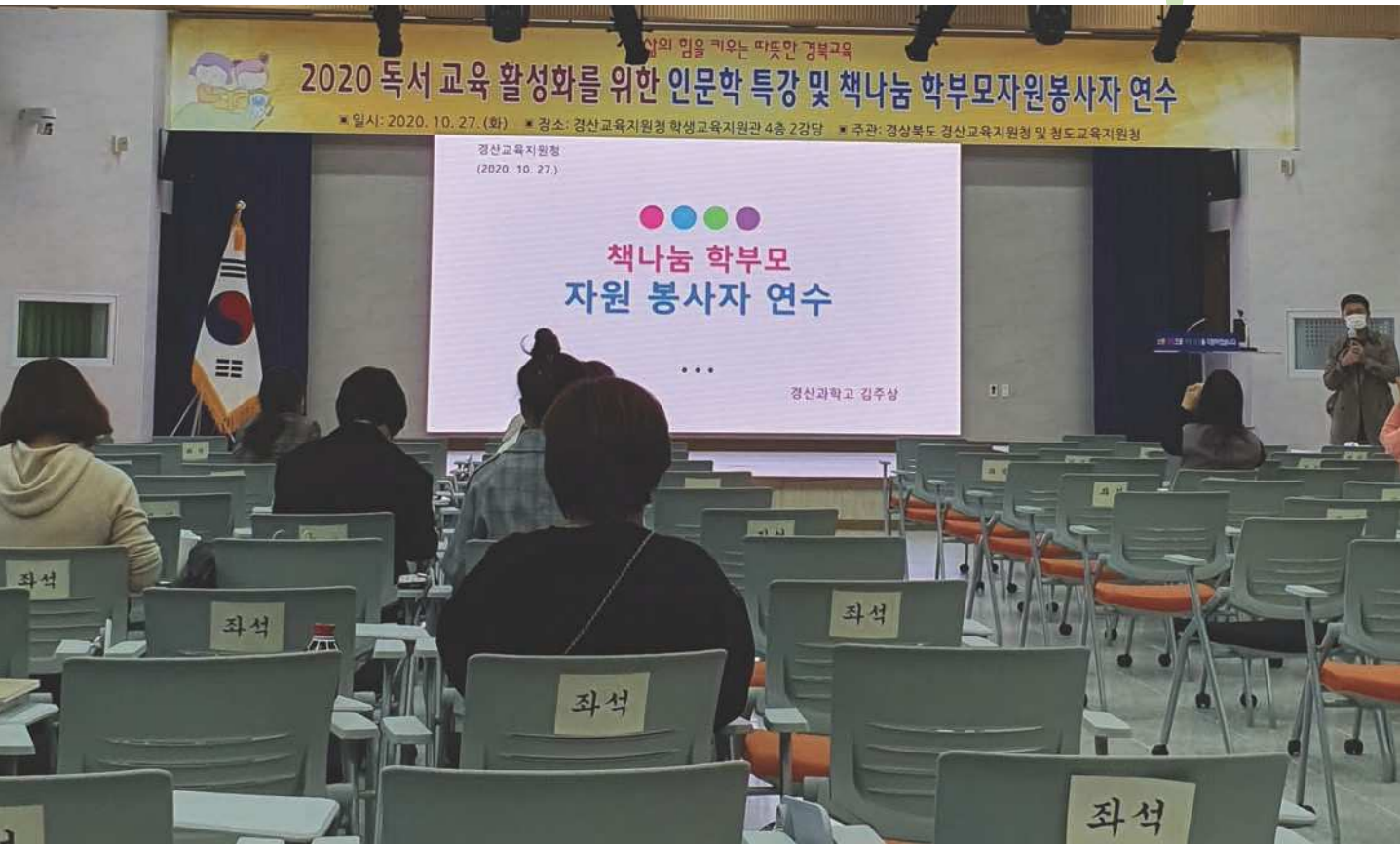
A1 유튜브 중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중계 현장마다 상황이 달라 영상이나 음향을 따오는 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 난감할 때가 많지만, 1년 가까이 중계를 계속하다 보니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계 시에는 간혹 장난스러운 댓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A2 알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의 입장에서 시청 중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하여 생생한 교육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릴테니 지켜봐 주세요.~

오곡백과, 단풍과 함께 무르익어가며 어느새 추수의 계절을 맞아 풍성함이 더해하고 있다. 코로나도 서서히 물러가면서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 제안 과정을 통한 자치 활동 핵심 역량이 함양되기를 기대해본다.

책 나눔 학부모자원봉사자 연수

2020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 특강



2020년 가을이 익어가는 10월, 경산 학부모 인문학 특강은 **'말하듯이 글 써라'**의 저자이신 강원국 교수님의 글쓰기 특강으로 시작되었다. 평소 연설문 쓰기를 업으로 해오신 분답게 말하기와 글쓰기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과 달라진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사람에 관심을 갖는 의미의 중요성과 달라진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사람에 관심을 갖는 인문학과 소통에 관한 관심사를 펼쳤다. 질문하며 관찰하고 경험하여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은 학부모 기자로서 누구보다 먼저 인지할 있을 듯하다. 이제 시대의 관건은 바로 창의력에 있다고 하신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아쉽게 막을 내렸다.

박찬숙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cs751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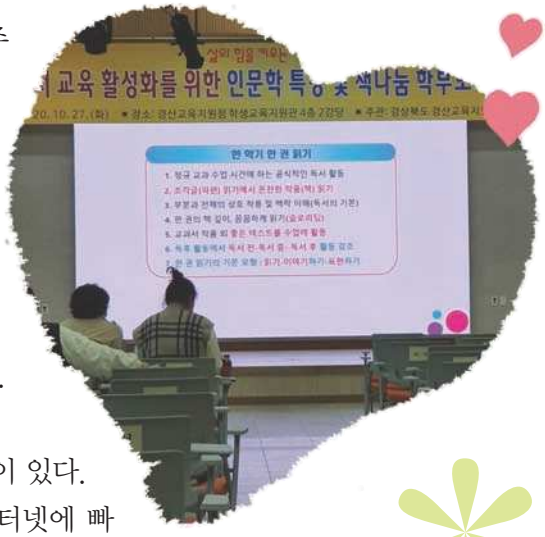


권승희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rir55@naver.com



다음은 경산과학고 사서 교사이신 김주상 선생님의 책 나눔 학부모 자원봉사자 실무 연수로 이어졌다. 학교 도서관 봉사활동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연수로 인기 만점이었다. 선생님의 맞춤형 연수가 사서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산의 많은 학교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 위기에 학교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혁신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다. 많은 자원봉사자의 숨은 노력과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는 도서관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독서 동아리 운영 및 책 읽어주기 등을 운영하며 자원봉사 활동 역량 강화와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에 적극적이다. 평생학습과 독서 문화 공유를 통해 독서 문화 환경 조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연수를 통한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해 실제로 독서 동아리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적용을 다짐하였다. 올해는 10~12월 월 1회의 정기 모임에 '인문학 도서 읽기' 를 통한 이야기 나누기에 치중할 계획도 세웠다.

'장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 ' 라는 말이 있다. 책을 아끼고 가까이하는 문화 만들기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빠진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심성 가꾸기와 창의적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학교공간혁신사업, 놀이중심교실사업

꿈의 궁전, 감천초등학교에 다녀오다



산 넘고 물 건너 또 산기슭을 돌아 돌아...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네비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데 웬걸.. 가도 가도 산길이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드물다 하지만 감천은 달랐다. 대체 공기 맑고 깨끗한 이 곳, 영상에서 보았던 꿈의 궁전, 꿈의 학교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 상상의 나래를 편다~

예천에 위치한 감천초등학교는 지난해 7월 교육청의 영역 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에 더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공간 조성 사업을 하였다. 외부전문가인 **'촉진가'**의 참여로 학교 공간이 창의공간으로 탈바꿈된 것이데 교육부의 **'학교는 살아있다'**에 아름답게 그 자태가 공개된 것이다.

학교공산혁신사업은 교육부에서 스마트교실, 단샘 무한 상상교실을, 경북교육청에서 1,2학년 놀이중심교실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업이 조화롭게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컸다는 것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공간을 재구조화해 사용자가 만족하는 학교로 1일 발명교실 운영과 3D 프린트를 이용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곳은 창의적, 감성적 공간으로 거듭나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수업 환경이 창조되었던 것이다.

더불어 환경개선사업은 학교 공간혁신사업과 깊숙이 연계되어 이를 돋보이게 하였다. 높낮이가 조절된 화장실 세면대, 복도의 은은한 조명들, 아기자기한 화분과 특별한 거울,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짐작할 수 있는 예쁜 소품들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손이 안 간 곳이 없었다. 어느 공간 하나라도 허투루

강은아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rosee-kang@hanmail.net



조혜연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stone313@hanmail.net





두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세심한
마음 씀씀이가 곳곳에 베여있었다.

"선생님! 우리 다목적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어떤 공간이 필요하니?"

기자: *공간혁신사업에 관련해 기존 공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최현겸 행정실장: 우리 학교 공간혁신사업은 영어실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학교이기에 '영어교실'이라는 푯말이 붙는 순간 영어수업 이외에 다른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해 '다목적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자.'라고 의견을 모았고 '단샘 무한 상상실'이라는 푯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영어수업은 당연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메이커교육 화상수업, VR체험, 과학수업 그리고 방과 후 수업까지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기자: *사용자(학생, 선생님)의 공간에 대한 요구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었나요?*

최현겸 행정실장: 놀이중심교실 사업이 선정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떤 공간이 필요하니?"라고 물었더니, "바닥에 배를 깔고 뒹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기 시작하자 많은 의견들이 자유롭게 모아졌습니다. 레고, 높은 다락방, 해먹, 암벽 타기 등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할까?' 고민하다가 복도까지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훨씬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공간이 됐구나."



기자: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반사업과 다른 점은?)*

박희성 학교장: 단순히 기존에 불편했던 부분을 바꾸는 사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 학교공간 사업은 기존 시설사업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사업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는 대로 진행되었고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공간사업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단시간이 아니라 2-3개월 기간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설계에 반영 → 수정 → 공간 구성의 절차로 진행되니 아이들은 자기 의견이 반영된 공사에 당연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완성된 공간에 더 만족하는 그런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놀이중심 교실 사업을 통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으셨나요? (미래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학교 공간에 대한 내용)*



박희성 학교장: 학교를 예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놀이중심교실은 '아이들이 놀기에 좋다.' 그런 것보다는 '놀면서도 공부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놀면서 공부하면 더 좋잖아요.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면서도 뭔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교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도 나누고, 읽고 싶은 것도 읽고, 자기 꿈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난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쉬는 시간에 왁자지껄 노는 소리에 슬며시 교실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네들끼리 엎드려서 놀이하고 즐겁게 놉니다. 정말 잘 놀더라고요. 이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이 됐구나."

기자: *앞으로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공간 사업을 준비하는 다른 학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박희성 학교장: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어떤 컨셉을 잡는 데 있어 한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견만 분분하고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잘 된 학교들을 보고 나면 우리 학교에 특성에 맞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다' 는 컨셉이 잡힙니다. 기본안 → 의견수렴 → 수정 → 반영 순으로 진행한다면 진행속도가 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건물 구조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변화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 기대하는 그 공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말, 변화된 학교 공간에 대한 평가)*

박희성 학교장: 아무리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활용할 콘텐츠가 없다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잘 활용해 보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도 참여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 자기 아이템도 녹여들 수 있고 자발적,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공간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구성원들인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분들을 만나나' 싶을 정도로 모든 분들이 아이들에게 열성적이다 보니까 저도 힘이 나서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들도 나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행동과 말 가운데 그런 것들이 싹틉니다. 교직원도 아이들도 학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인터뷰를 나누는 동안 학교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와닿았고, 지나가는 학교 교직원들의 밝은 표정에서 행복한 학교임이 알 수 있었다. 몇 백억 들여서 잘 지어진 세련된 학교보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모습을 자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학교공간사업에서 바라는 것이 아닐까. 지금도 선생님들의 자발적 의견 개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좋은 생각은 수용하고, 학교 공간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12월 복도 끝 책시락에 음악도 들을 수 있게 무선망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미 내 귀에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이 오는 소리' 가 들리는 것 같다.



"힘들 때는 햇살이 잘 드는 오두막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봐요."

기자: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공간은 어디인가요?*

3학년 민혜령 학생: 단샘 무한상상실입니다. 3D프린터로 아무거나 만들 수 있고, 복도에는 방탄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우리 학교에서 소개하고 싶은 공간은 어디인가요?*

3학년 김하늘 학생: 희망반 옆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걷다가 힘들면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기자: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3학년 김루니 학생: 저는 오두막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구멍이 뚫린 창이 있어서 친구들을 보면서 놀 수 있고, 햇살 덕분에 클레이어 말리기에도 좋고, 힘들 때는 여기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 기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좋아요. 옛날에 다니던 학교는 시멘트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여기는 나무로 만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리를 옮겨가더니) 그 오두막도 좋지만 확실히 여기가 (교실 내 책이 있는 계단)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여기 있는 책들이 저에게 생각할 권리는 주는 것 같아요. 책들을 다 봐도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보는 것에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예전에) 잘못 봤던 것까지 다시 볼 수 있어서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학교 내 공간 자랑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 이내 실룩실룩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주변에 문구점이 없어 생활 상점제를 운영하고, 단샘 문방구(교실이름)에서 구입하고 싶은 문구류를 점수와 맞교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그곳 감천초 공간이 너무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했는가. 오늘은 도시에 사는 내가 이 아이들의 표현에 K.O 당해버렸다.

단샘 문방구를 나오며 작은 칠판에 적힌 메모가 나를 한참을 머물게 한다. 필요한 물건이 없을 경우 메모해 두는 곳이란다. 내가 원했던 학용품이 단샘 문방구에 입고돼 진열되는 순간! 애써 모으고 아껴두었던 상점을 사용할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되는 기분 좋은 순간을 아이들은 만끽한다. 신나는 이야기 책 속에서만 나올 거 같은 꿈의 학교! 예천 감천초등학교!

그렇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구성원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교정을 나서는 내내 나의 귓가에 맴돈다. 교실 오두막에서 소년이 말해주었던 그 가을 햇살이 흩날리는 낙엽 사이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따스한 교육 이야기가 담긴 한 권의 동화책을 읽고 나오는 기분에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올라왔던 내 모습이 오버랩된다.

동산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소통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자치회 활동 활성화



아침맞이 인사로 동산여중 등굣길의 시작된다. 저 멀리서 좌우를 살피며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및 생활지도의 수고로움이 시작된다. **'학교자치순찰대(School Patrol)'**는 전교직원, 학생자치회 임원, 선도부원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 2021년 1월까지 자율적 순찰대 구성원(임원, 순찰교사, 배움터 지킴이)으로 순찰조(2~3명씩)를 편성하여 담당구역별, 활동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침맞이 행사로 교내 정화 활동이 이루어진다. 매일 등교 후 20~30분 정도, 임원 2~3명씩 **'교내 쓰레기 줍기'** 모습을 순간 볼 수 있다. 교내 정화와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까지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아침맞이는 주 2회(화, 목요일)로 운영시간은 8시~8시 30분까지 이뤄지는 행사로, 학생자치회 회의를 통하여 랜덤 방식으로 학급 순서를 선정한다. 학급별 회의를 통하여 특색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알맞은 부주제를 마련하는 등 행사의 전반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학급의 정서가 깃든 테마별 아침맞이를 운영하게 된다. 특색 있는 교내 아침맞이 등교 행사로 학생 맞이를 통한 소통과 배려의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었다.

아침맞이 행사는 참여 반별로 일정에 따라 다양한 종류(캐릭터 뽑기, 레드 카펫, 놀이공원, 추억의 제비뽑기 등의 개성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와플, 젤리, 어묵 등의 간단한 간식거리)로 제공되었고, 이번 아침맞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거리유지 및 위생 수칙을 지켜가면서 준비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시리얼 제비뽑기 행사와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비대면 등교코드 아침맞이(QR코드 참여)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서도 시선이 끌었다. 시험을 앞두고도 **'친구야~ 사랑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험 잘 쳐~'** 등 다양한 멘트의 등교 맞이의 인사로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외부와의 온도차로 마스크의 입김은 서려서 축축해도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따스한 아침이었다.

오숙자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yesora0316@naver.com



학생들의 건의사항 **'사복데이'**가 반영되었다.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는 코로나19로 등교중지, 온라인수업, 격주 등교가 이루어졌다. 2020학년도에 학생자치회에서 **'사복데이'**를 건의 받아 학생의 편의를 위해 교복 대신 사복을 입는 날을 월 1회 지정하였다. 학생 복장에 대한 세부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선정적이지 않고, 안전한 복장으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생 생활 규정 및 정책에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학교문화를 학생 중심으로 바꾸어 가는 작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1. 학생자치회 활동 '아침맞이 행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나요?

아침맞이 행사는 동산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학생들과 학생안전부, 연구혁신부 선생님들의 협조에 의해 마련된 학생자치 행사인데요.학생들의 소통과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바른생활, 금연 및 학생 규칙 준수 등을 캠페인을 통하여 학생 자치 활동을 전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함께하는 즐겁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학생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2. 등교맞이(11월 12일 행사를 준비한 반)를 위한 준비 활동들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견해를 넓힐 수 있어 좋았고, 돈독해지는 우정을 느끼며 행복한 하루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학급별로 준비한 행사로 동산여자중학교의 전교생이 밝은 미소와 웃음이 넘치는 교정을 만들어간다는 장점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3. 학생자치회 활동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은? (학생자치회장 안OO)

2020년 개성 넘치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학교에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행복하도록 행사를 결정하는 것이 학생자치회 회장인 저에게는 부담스럽지만, 이 또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 배우고 익혀야 하는 바람직한 배움이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상황판단 능력과 가치판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은 배움과 성장의 주체로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민주 시민적 역량과 단위학교 학생자치 능력을 함양하고 있었다. 동산여자중학교 박재실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소통과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바른생활, 금연 및 학생 규칙준수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학생 자치 활동을 전개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즐겁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로서 지역의 자랑이자 나아가 전국의 모범이 되는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할 것을 확신한다. 이는 학생들의 노력과 학생자치회 활동 활성화가 가져온 당연할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경산권역 워크숍 개최

지난 11월 4일, 경산교육지원청 학생 교육 지원관 2강당에서 2020년 미래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경산권역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경산 지역 학부모 및 도서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여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임종식 교육감과 이용희 장학관이 '경북교육정책 및 미래교육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삶의 힘을 키우고 따듯한 경북 교육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의 변화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교육 정책과 그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매체를 이용한 교육은 10년 뒤에 예측된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에 의하여 앞당겨졌다고 하였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경북형 원격수업 모델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 교육 포털 서비스인 내친구 교육넷(gyo6.net)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학생 및 학부모가 제대로 된 학업 성취도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별도로 『스스로 학업성취인증제』를 신설하여 학업 성취도를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공식 채널인 『맛쿨멋쿨TV』를 이용하여 학부모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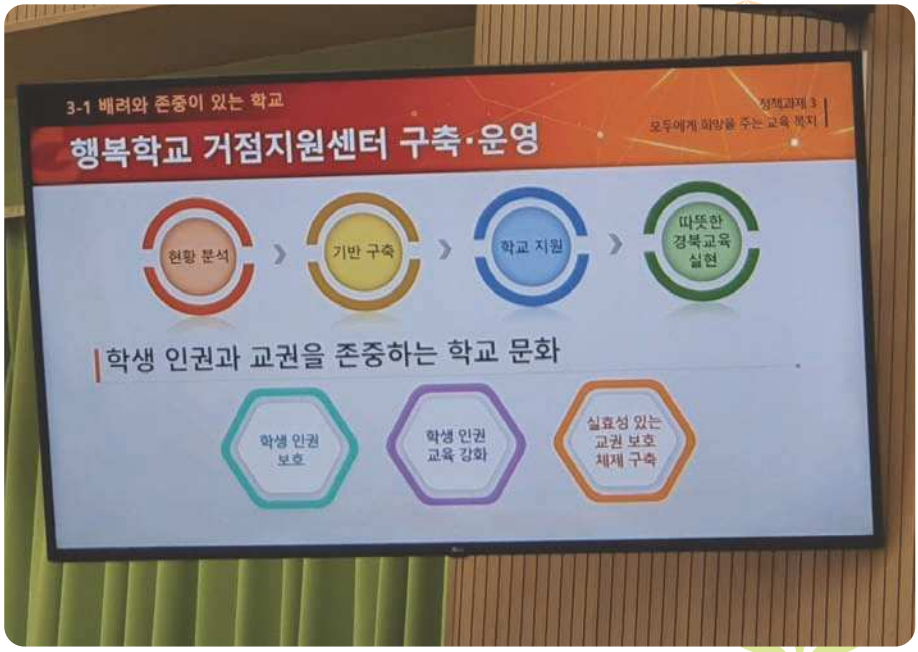
권승희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rir55@naver.com



박찬숙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cs7510@naver.com



자료와 경북 교육 소식 등 좋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걱정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보다 많은 교육 지원이 있기를 바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더 크고 넓은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0 영주창의융합 온라인 축전!

선비, 과학 수학 원리에서 노닐다



영주교육지원청은 수학과 과학의 대중화를 목표로 다양한 경험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한 창의융합적 사고 및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해마다 성황리에 개최되어 영주창의융합 축전을 운영해 왔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축전으로 11월 23일(월)~30일(월)까지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참여대상으로 2020 영주창의융합 온라인 축전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희망으로 새로운 방식인 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영주창의융합축전 .kr/)로 활용하였다.

온라인 체험 부스는 28개를 운영하였다. 학생, 가족, AI(체험마당), 온라인 전시마당 등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하였다. 온라인 체험 부스는 열린 소통의 공간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영주 창의 온라인 축전은 꿈나무들의 호기심과 무한한 상상력을 공유하고 미지의 세계, 끊임없는 도전의 계기가 되고 있다.

☞ *'학생체험마당' 속으로 쏘옥~*

Q. 코로나19 '2020 영주창의융합 온라인 축전!' '학생체험마당'에서 참여 신청동기와 후기?

A1. 2020 영주창의융합 온라인 축전!', '골드버그 장치

오숙자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yesora0316@naver.com



'골드버그 체험'
– 단산중 2학년, 나○○



힘메리다면체
– 남산초 5학년, 조○○

만들기(대영중) 체험' 참여

– (단산중 2학년 나○○)

*"작년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면서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하게 되어 참가하게 되었다. 안내 동영상을 보고, 내가 체험하고 싶은 부스를 신청하고, 체험꾸러미를 받아 영상을 보면서 체험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재미있었다."*라고 말했다.

A2. 2020 영주창의융합 온라인 축전!' 초등발명 '힘메리다면체 만들기(영주여고)' 참여

– (남산초 5학년 조○○)

창의융합축전 안내 현수막과 학교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고 궁금하던 차에 학교에서 체험 신청을 받아 반가운 마음에 체험 신청을 했었는데, 꾸러미를 여러 개 신청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중에 다면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기에 힘메리다면체를 신청했었다.

*"다면체를 만들 때, 집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틀을 잡아 보았지만, 낚싯줄로 묶는 게 조금 어려웠다. 다 만들고 나니 멋진 완성품이 되어 뿌듯하고 기뻤다."*라고 하였다.

☞ 학생, 학부모, 시민, 단체, 동아리 모두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함께 참여해요'–가족체험신청)후 체험꾸러미를 수령 (기간 내 방문)하여 참여 가능하며, 동영상 안내에 따라 직접 제작해 본다. 관련 동영상 업로드 시 조회 수 또는 추첨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는 부스!

'가족체험마당', '휴대용 공기청정기 만들기(대영중)'

"호기심을 갖고 한번 신청했는데 꿈을 키워가기에 참 좋고, 과학의 원리가 이렇구나." 싶었다.

☞ AI체험마당을 통해 영주지역 수학 동아리에서 선보인 체험 코너!

AI 수학 인공지능 체험 영상을 따라 하면서, 수학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다.

수학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정보 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가운데 비판적 사고력, 지식정보 해결역량, 공감 · 소통 능력 등을 길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수학 인공지능(AI) 체험관

게임 기반 콘텐츠를 통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과학, 수학을 배울 수 있게 해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학교나 가정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고, 학습 격차를 줄이고, 차별 없이 배울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부스를 운영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된 동영상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또한, 가족 및 온라인 체험을 위하여 안정성과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관내 초, 중, 고등학생 대부분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끌어냈다.

☞ 가족, 시민 참여 부스 프로그램 운영팀의 현장 소리를 들어본다.

A1. '휴대용 공기청정기와 골드버그 부스 운영(대영중)' 참가(대영중 하승민 교사)

대영중학교 부스 운영 종목은 당초 '휴대용 공기청정기'로 학생 체험프로그램 및 가족 체험프로그램 두 군데 모두에 채택되어, 재료와 부품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신청자가 급속하게 몰리면서 수량이 부족하여 부랴부랴 골드버그 프로그램으로 일부를 대체하였다. 꾸러미 제작이 번거롭고 시간상으로 매우 바빴지만, 학생들과 합심하여 무사히 꾸러미 제작을 마쳤다.

단순한 도구 조립품이 아니라 학생들과 합심하여 아이디어를 짜내고 직접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부스 운영 학교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의 체험 후기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힘들었던 상황이 보람으로 바뀌는 듯했다.



▲ '골드버그 부스운영팀(꾸러미 제작사진)' – 대영중

A2. '골드버그' 부스 프로그램 운영팀(대영중 구○○ 학생))

평소에 '골드버그'라는 이름만 들어보았지만, 이번 영주창의융합축전에서 우리 대영중학교가 제공한' 골드버그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면서, 단순한 재료이지만 다양한 방법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골드버그 프로그램을 해보며 기계공학의 꿈을 꾸고 있는 나에게 한 층 더 진로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골드버그에 필요한 재료를 포장하기 위해 이틀간 반 친구들과 함께 작업한 것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 전시마당(영상 홈페이지 탑재–영주시민 누구나 작품 제작 참여 및 사진 · 동영상 업로드 가능)속으로도 쏘옥~(영재전시관, 동아리 전시관, 동영상(UCC)전시관)

☞ *영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함께 참여해요' 코너에서는 사진 게시판, 영상 게시판을 통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긍정과 희망이 담긴 응원 코너! 창의융합 축전 체험 후기 영상이나 사진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코너와 창의융합축전의 성공적 개최 기원 및 축전의 성격, 메시지가 드러나는 슬로건 홍보 디자인 살펴볼 수 있다.*



◀ *'함께 참여해요' –초등수학 –헥사스틱(영재교육원)*



▲ *'함께 참여해요' –사진게시판 –워킹로봇(남산초)*

영주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2020 영주창의융합축전은 영주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체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의융합적 사고와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가족 및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2020 영주창의융합 온라인 축전'은 준비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님을 초대하였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만지고, 즐기며 상상과 호기심으로 미래를 열어 가기에 좋은 공간이 되었다.



▲ *'함께 참여해요' –사진게시판 –워킹로봇(남산초)*

'지난날을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알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해본다.

막연한 기대 속에서 어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아닌. 오늘 주어진 현실을 모두가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냈을 때 기대해 보는 내일! 기대가 된다.

학부모기자가 뗐다!
신성초, 팩트체크 원투쓰리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지역 학부모

경북교육청은 올해 초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성과평가회'**를 통해 작은학교 자유학구제의 차별화된 특색프로그램과 운영 성과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113명의 학생이 작은 학교로 유입돼 9학급이 늘어난 효과를 내 성공적 출발을 알렸다. 올해는 초등학교 97개 학교, 중학교 11개 학교로 총 108개 학교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확대 시행해 그 기대효과의 좋은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 소문난 곳은 풍산중학교 소식이었다. 2020학년도 도청 신도시 풍천 중학구 학생 50명이 유입돼 도청 신도시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면서 이목이 쏠렸다. 이와 못지않게 신성초등학교(김현광 교장) 또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 한때 전교생 20여 명 남짓으로 줄었던 신성초등학교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혜택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다. 급기야 올해 28명으로 시작한 신성초가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지정되고 지금까지 전 · 입학생 23명을 더해 51명의 소규모 학교로 거듭났다.

먼저 시작한 학교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회를 한 것이 이제 시작하는 작은 학교에 매우 유익했다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느껴진다. 작은학교 자유학구제의 활성화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이 기본 취지였다. 신성초등학교를 믿고 찾아와 준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존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는 고스란히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역시 교육현장에서의 선방은 이런 것이다. 신도청 통학 차량 노선을 확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사전에 해결해 주었고, 총동문회에서는 전 · 입학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적극적 협력으로 작은학교 살리기에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공개해 주변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이곳은 5급지라고 할 만큼 벽지였다. 학생과 교직원 80명의정도지만, 남자 화장실 좌변기가 1개일 만큼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언제 폐교가 될지 모르는 이곳에서의 작은학교 살리기는 거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는 미션 임파스벌을 연상케 한다.

강은아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rosee-kang@hanmail.net



남명남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youthnews0308@gmail.com



조혜연
1기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
E-mail: stone313@hanmail.net



작은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마을이 사라다는 것을 우리 경북도민 모두는 경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선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화장실 변기 #당위성 #현관의 #공간 활용 트랜스포머

"아이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못 가고 기다리는 게 말이 됩니까? 내년, 후 내년에 폐교가 되는 학교라 할지라도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부족한 화장실을 마련해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과 운동장에 나가서도 놀 거리가 없는 것에 대한 다목적 활용 공간을 창조해 내는 것이 급선무라 여겼습니다."

교장실은 아이들과의 소통공감토론회가 열리는 공간이다. 학교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교장실에 가서 현재 상황을 밝히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펼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토론으로 이어지는데 신성초 토론 수업은 교장실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었다. 학교의 중심부인 현관을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인 것이 분명하다.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분명 차가운 현관이었을 법한데 아늑한 북카페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다. 좌측으로 돌아가니 긴 복도의 벽면을 재구조화해 기대어 책읽기 좋을 푹신한 의자 모양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알알이 박힌 간접 조명등이 아기자기한 공간을 연출해낸다. 아. 시선을 돌리니 밖이 훤하게 내다보인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탁 트인 들판 너머까지 그 뷰가 가히 환상적이다.

#운동장 놀 때 #등교할때 #동요듣고파

교장실에서 나온 의견을 100% 반영해 등 ·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경쾌한 동요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년 넘어 음질도 고르지 않는 오디오를 과감히 교체하였다. 오늘 아침은 가곡을 들려준다. 교문 안까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오던 아이가 이제는 교장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제법 빠른 속도로 의엿하게 걸어 들어온단다. 아... 오늘은 무슨 의견을 낼려나?

교장실 창밖은 국유지로 앞으로의 계획은 국립산림청과 연계해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란다. **'산림청과 함께하는 학교 속 정원'**에 일부 망을 씌워 작은 동물원을 연상케 하듯 토끼를 비롯한 동물들을 풀어놓을 것이라는 교장 선생님의 밑그림을 공유하며 입가에 미소가 담긴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더 효과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수도 이미 신청했다는 교장선생님을 마주하며, 지칠 줄 모르는 신성초 아이들 사랑이야기를 숨 가쁘게 쫓아가 본다.



#독도 사랑 #가슴에 아로새겨 #울어놓고 또 하잔다.

6학년 00이가 보물찾기 중에 독도 보물을 못 찾고 결국 울었다는 이야기에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학부모기자는 교장선생님을 향해 원망 섞인 질문을 했다. *"좀 하나 살짝 찾아주지 그러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보물찾기 이야기를 하려 한다. 독도의 날을 기념해 교장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안녕! 독도]** 조회 수가 7만뷰가 넘었다. 생각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독도주간을 신성초는 어떻게 보냈을까?

인터뷰하는 우리 학부모 기자들은 하나같이 종이에 적혀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 애썼다. 아마도 그날 아이들도 그랬을 것이다. 역시! 그랬다. 보물이 없다. 선생님들도 당황했고 아이들도 애가 탄다. 교장선생님의 보물찾기 이야기를 듣다가 기자들의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아~ 아~ 학교의 보물이 우리학교의 오랜 은행나무에 달린 나뭇잎, 운동장의 돌맹이, 학교 담장에 도토리.. 이 모든 것이 우리학교의 보물이란다. 거기에 굵은 펜으로 「**독도**」 이렇게 씌여져 있었다. 흐느껴우는 학생에게 건네는 교장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꿀밤나무도 우리의 학교의 보물이잖아~"* 아이쿠!!

왜 계단에 생각지 않게 돌들이 올라와 있지? 1학년 아이가 돌맹이를 집어들더니... *"야~~~ 독도다!"*

글씨를 확인했나보다. 누구 하나 소리를 치니 하나 둘씩 여기 저기서 함성이 들린다. *"독도 찾았다." "나도 독도다!"* 생각지 않았던 것... 어쩌면 하찮게 여기는 그것이 귀한 것이 우리 학교의 보물이었다.

이것이 끝이 아닌 듯 싶었다. 요즘 TV예능프로그램들과 꿀잼 유튜브에서 왠만한 재미로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게 수준을 높여 놓았다. 또, 우리 매스미디어가 일반적 교훈으로는 아이들의 감동샘을 터트리지 못한다. 눈으로 귀로 감성을 자극하고 있어 보통 프로그램은 가슴에 오래 남지 못한다.

1900년 고종황제가 독도영유권 칙령을 반포한 **'독도의 날'**을 기념하면서 신성초등학교의 독도 사랑 실천 콘텐츠는 뭐가 달라도 달랐다. 이어진 독도 퀴즈쇼에서도 진행방식에 스릴 있어 한아이들은 한 번 더 하자고 한단다.

#쓰리스타의 #트리플협주 #환상의하모니

방과후 교사를 포함한 교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촘촘한 학교 행정으로 몸소 실천하는 신성초등학교는 앞으로 시행될 프리데이로 주1일 온종일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원하는 짜임새 있는 활동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아이들과의 세 가지 약속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둘째, 인사를 잘 하자. 셋째, 감사하자'**로 그 중 인사를 잘 하는 학생으로 선정되면 함께 서점을 방문에 책을 선택하게 하고 그 책 안쪽에 **'인사를 잘하는 00에게'**라는 기록을 남기며 이 책에 특별한 애정을 두도록 참 교육의 의미를 담아 건넨다. 스쿨버스 3회 노선 대기시간에 음악이 흐르는 북까페 꿀뷰를 내다보며 바닥 따뜻한 곳에서 여유를 만끽할 신성스튜디오 방송국의 개국을 기대해 본다.

지역별 학부모기자단 현황

연번	기수	이름	지역	연번	기수	이름	지역
1	1	권승희	경산	22	2	문지원	성주
2	1	주재중	경산	23	2	이은정	성주
3	1	이정민	경산	24	1	오숙자	영주
4	1	박찬숙	경산	25	1	장세희	영주
5	1	석인주	경산	26	1	이주섭	예천
6	2	정은신	경산	27	1	조혜연	예천
7	1	이민혁	경주	28	2	고삼주	의성
8	1	장영미	경주	29	1	강은아	칠곡
9	2	정진희	경주	30	1	권태경	칠곡
10	1	남명남	구미	31	1	기수정	칠곡
11	1	김지혜	구미	32	1	이승민	칠곡
12	2	김차숙	구미	33	1	이명옥	칠곡
13	2	방동성	구미	34	2	김윤미	칠곡
14	1	최순옥	김천	35	1	고경애	포항
15	1	임은희	김천	36	1	최미경	포항
16	2	김선주	김천	37	1	손호진	포항
17	1	이미선	문경	38	1	이경숙	포항
18	1	박　경	문경	39	1	윤선영	포항
19	2	조현정	문경	40	2	최현숙	포항
20	2	이금희	상주	41	2	서보리수	울릉
21	2	김재은	상주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기자단이
보내주는 따뜻한 현장소식

학부모리포트

학부모리포트는 블로그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블 로 그: https://blog.naver.com/2mcool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